

LOOP
ALT SPACE

TB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OETHE
INSTITUT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한국문화재단

SOUND ART
KOREA

레퓨지아

레퓨지아: 11인 여성 아티스트의 사운드 프로젝트

2021/2/17~3/14

대안공간 루프, TBS 교통방송

아티스트: 엘리안느 라디그, 타니아 레온, 민예은,
이슬기, 이영주, 장지아, 전미래, 조은지,
크리스티나 루비쉬, 시바 페샤레키, 함양아

큐레이터: 양지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독일문화원,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참여작가: 엘리안느 라디그, 타니아 레온, 민예은, 이슬기, 이영주, 장지아, 전미래, 조은지
크리스티나 쿠비쉬, 시바 페샤레키, 함양아

전시기획: 양지윤

기간: 2021년 2월 17일(수)~3월 14일(일)/삼일절 휴무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방송매체: TBS 교통방송 라디오

관람시간: 11시 13시 15시 17시 1일 4회차 최대 1인 예약 관람

주최: TBS 교통방송, 사운드 아트 코리아

주관: TBS 교통방송, 사운드 아트 코리아, 대안공간 루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독일문화원,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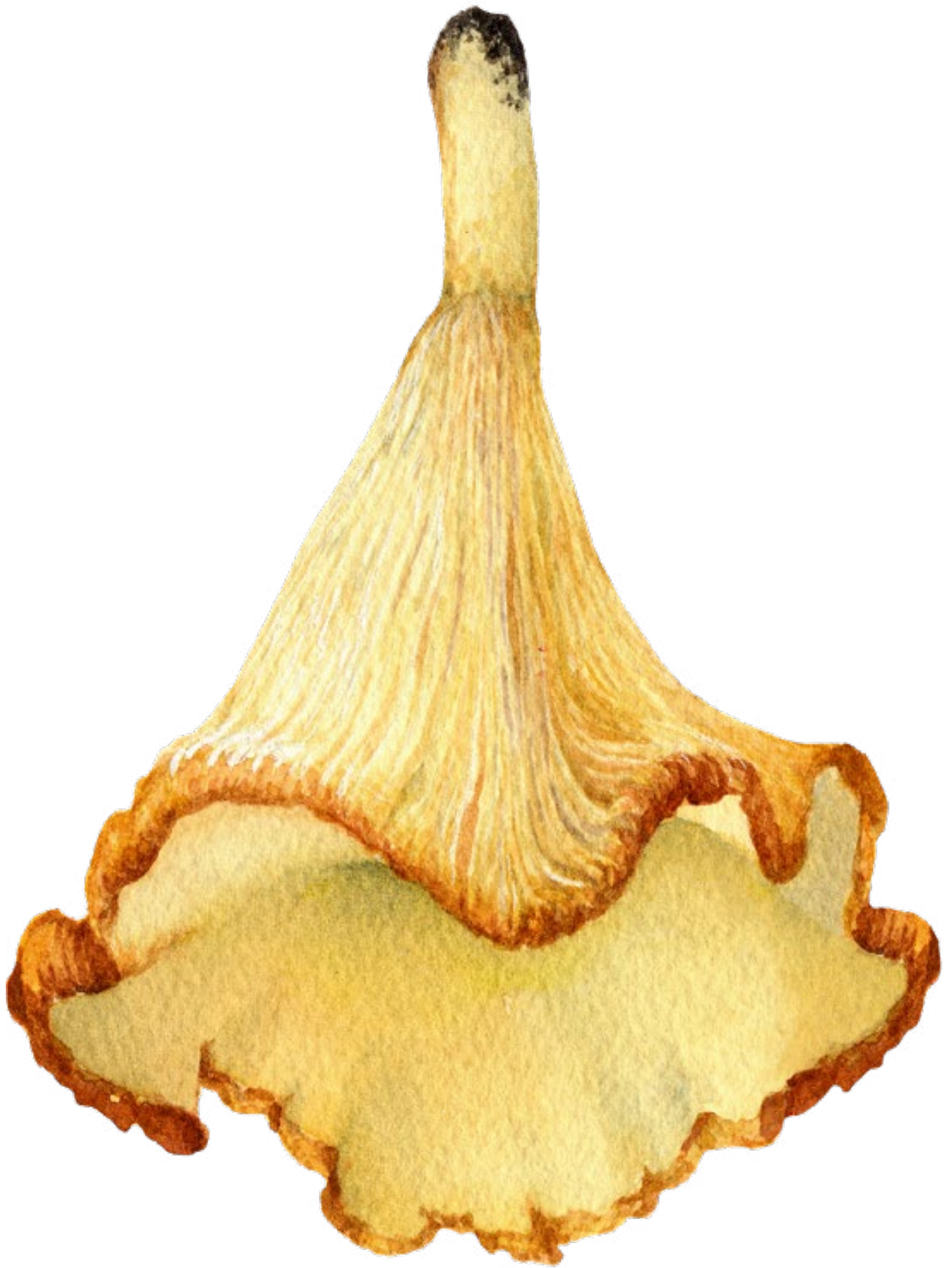
공공미술 프로젝트 <레퓨지아>는 전세계에서 여성 아티스트 11인이 참여한다. 전시 제목 <레퓨지아>는 집단생물학 용어로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마지막 남은 공간을 말한다. <레퓨지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세계가 우리의 문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질문한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 너머-가부장제 너머-공생과 지속의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가능할까? 예술가들은 상상한다.

오래전부터 참여 아티스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태와 인간의 위기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파리의 엘리안느 라디그, 뉴욕의 타니아 레온 그리고 베를린의 크리스티나 쿠비쉬의 작업들은 사운드 아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전통적 방식의 전시 관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세 가지 관람 방식을 마련했다. 첫째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대안공간 루프에서의 관람 방식이다. 둘째는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관람 방식이다. 세번째는 TBS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한 관람 방식이다.

현재 우리의 청각 문화는 사실상 문화 산업으로서 대중 음악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운드 아트라는 예술 형식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청각 문화를 꾸려나가는 데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예은, *이게 맞나*, 2021년, 비디오, 3분 14초
서도민요 사설난봉가를 개사해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노래한 작업이다. “이러다 어쩔싸 이게 맞나” 라는 가사는 코로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비록 지금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도,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노래한다. 민요는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에, 그 시대의 공감감이 있어야 구전될 수 있다. 코로나를 노래하는 새로운 민요 <이게 맞나>는 구전될 수 있을까?

이슬기, *여인의 섬*, 2019년, 비디오, 13분 30초

프랑스 브르타뉴 북쪽 해안지역인 팽베낭 PENVÉNAN에서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다. 남성 성기의 모양을 닮은 <여인의 섬 L'ÎLE AUX FEMMES>다. 1950년대 브르타뉴의 낭트 지역에서 여인들이 부르던 외설스러운 노래가 있었다. 이슬기는 노래 가사를 바탕으로 방언을 섞어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 영상에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여인의 섬’ 곳곳을 누비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다. 컴퓨터 스크린이나 지루한 노동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노래한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영주, *검은 눈*, 2019년, 애니메이션, 11분 10초

미국 정부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식민지였던 일본의 마셜제도에서 67회의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 원폭 실험 아카이브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검은 눈>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인 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애니메이션이다. 당시 이 곳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방사선의 파괴력을 알지 못했다. 몇몇 원주민은 방사능 낙진을 눈으로 착각해 이를 먹기도 했다고 한다. 원주민에게 ‘무덤’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돔 안에는 아직도 핵 폐기물들이 묻혀 있다. 해수면 상승과 바닷물로 인한 부식으로 무덤에는 균열이 생겨, 지금도 바다와 육지에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장지아, *스위치*, 2014년, 물소 가족에 드로잉, 266X315CM

장지아 작가의 자작시와 드로잉을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 위에 인두질로 새긴 설치 작업이다. 지금 같은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이 작업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인간이 제도에 길들여지거나 컨트롤 되지 않은 상태, 그 본연의 감각과

취향, 감정, 성적 지향 등을 드로잉한다. 한때는 살아있었던 동물의 가죽을 뜨거운 인두로 태워 글을 쓰고 드로잉을 했다. 여리고 약한, 깊이 들여다보기 전엔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관객에게 전한다.

장지아, *붉은 드로잉-프로젝트*, 2020~2021년, 오브제(엽서), 각 15X21CM

작가는 질병의 시대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엽서를 보낸다. 작가는 작은 종이 위에 그림일기처럼 자신의 일상을 그리고, 그날 그날의 생활과 감정을 글로 적었다. 엽서를 받은 이들은 작가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엽서에 대한 생각을 보낸다. 빛과 같은 속도로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이지만, 작가는 엽서라는 소통 방식을 고집한다. 참여자는 느린 소통의 속도를 경험한다.

조은지, *나의 쌍둥이 문어 OCTO-0을 위한 노래*, 2020년, 비디오, 10분 15초

작가는 인간 중심의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뒤흔들 새로운 언어의 출현을 상상한다. 인간은 지구의 언어를 소외시키고, 자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잊었다. 코로나 시대, 인간 중심의 언어는 이미 지난 세기의 것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이 새로운 언어가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만 가능한, 오염되고 뒤섞인 혼종의 언어이다. 퍼포머들은 물 속에서 문어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이 노래가 새로운 언어의 출현을 기다리는 예술적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

엘리안느 라디그, *바이오제네시스*, 1996년, 사운드, 21분

라디그는 60년대부터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사운드 아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가이다. 라디그는 아들을 임신했을 때와 딸이 첫 손주를 임신했을 때, 태아가 움직이는 소리를 녹음한다. 청진기와 마이크, ARP 신디사이저 만을 사용해서 채집한 맥박과 심장의 박동 소리만으로 <바이오제네시스>를 작곡했다. 작업의 제목 <바이오제네시스>는 ‘생물속생설’을 말한다. 생물속생설은 신이 생물을 창조했다는 ‘자연발생설’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살아 있는 생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론이다. 라디그의 작업은 정확하고 정밀한 디테일을 반복해서 만드는 독창적인 피드백과 루프가 특징이다.



전미래, *팝!*, 2021년, 오브제
(원형 코르크, 원형거울 여러 개)

동그란 형태의 설치 작업은 구멍이나 효모, 기포를 연상시킨다. 동그란 형태의 코르크는 '팝!' 소리를 내며 터져나온다. 마치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제 몸을 여는 듯한 장면이다. 작가는 코르크 조각들을 사용해 몸, 춤, 축제 같은 글자를 거울에 새겼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활짝 열어, 흥과 춤, 예술을 만들어왔다. 전미래 작가는 발효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흥어, 만두피 같은 음식에서 시작하여, <팝!>에서 작가는 와인과 코르크를 통해 발효를 연구한다. 인류 문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술의 여신 '닌카시'가 발효된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곡물과 과일로 술을 만들었던 여신들을 상상하여 만든 설치 작업이다.

전미래, *어떤 부활*, 2021, 사운드, 3분 30초

작가는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낭독 작업 <어떤 부활>을 썼다.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을 통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이다. 사도신경처럼 이 작업도 시간을 열두구간으로 나눈 구조를 갖는다.

함양아, *텅 빈 세계*, 2020년, 비디오+사운드

무한해 보이는 태양 에너지와 달리, 화석 에너지는 한정된 보유량을 갖는다. 제한된 화석 에너지를 둘러싼 탐욕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정치사회적 충돌의 근원이 되었다.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의 가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다. 외적 성장 대신 공존할 수 있는 내적 발전을 선택해야 한다.

시바 페사레키, *증기*, 2020, 사운드, 4분 37초

이런계 영국인 아티스트 시바 페사레키는 지금 가장 혁신적인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증기>는 급진적인 전자음악 문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드럼앤베이스를 컷앤페이스트 샘플링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런던과 베를린의 음악 문화에서 근거하는 해체라는 방식으로 작곡한다. 시바의 음악은 조각가가 재료를 다루듯 음향적 공간과 시간을 물질적으로 다룬다. 턴테이블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음악은 관객에게 강렬한 촉감을 제공한다. 시바는 말한다. "이 작품은 <증기>라고 불립니다.

모든 음이 제 아날로그 공간에서 에코를 통해 처리되며, 두껍고 전자적으로 생성된 증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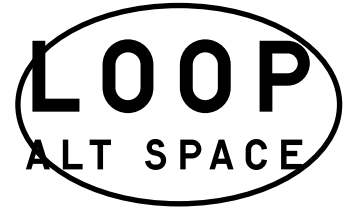
타니아 레온, *수평선*, 2000년, 사운드, 0분 56초

쿠바 태생인 타니아 레온의 음악은 춤추는 행위가 일상인 쿠바 문화가 녹아 있다. 레온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 재즈와 가스펠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현대 테크놀로지와 결합한다. 레온은 곡의 전개를 자전거 타기에 비교하며, 리듬이 아닌 움직임이 작곡의 주요 요소라고 말한다. 그의 음악에서 리듬과 전개는 신체적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레온은 자신의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늘 마주해야 했다. "나와 같은 피부색의 여성이 진지한 음악을 지휘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남성 지휘자 보다 두배는 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크리스티나 쿠비쉬, *테슬라의 꿈*, 2014년, 사운드, 22분 56초

크리스티나 쿠비쉬는 독일 사운드 아티스트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70년대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에서부터 00년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설치 작업, 2004년 특수 제작된 헤드폰을 끼고 전자파를 들으며 도시를 걷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자적 산책(ELECTRICAL WALKS)> 등 많은 대표작이 있다. <테슬라의 꿈>은 수많은 전자 기기와 통신 기술을 발전시킨 니콜라 테슬라에 헌정하는 음원 작업이다. 19세기 악기인 아르모니카 소리와 오스트리아의 옛 기차역에서 녹음된 자기장 소리로 노래는 시작한다. 브라티슬라바의 옛 타트라 전차선로를 녹음한 전자 멜로디가 이어져 나온다. 테슬라의 기기가 내는 사운드가 더해지며 연주는 흘러간다.





상영 시간표 TIME TABLE

1부: 헤드폰 감상

조은지, <i>나의 쌍둥이 문어 OCTO-8을 위한 노래</i>	사운드+비디오	10분 15초	2020
시바 페샤레키, <i>증기</i>	사운드	4분 37초	2020
함양아, <i>텅 빈 세계</i>	사운드+비디오	3분	2021
이영주, <i>검은 눈</i>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11분 10초	2019
엘리안느 라디그, <i>바이오제네시스</i>	사운드	21분	1996

2부: 스피커 감상

민예은, <i>이게 맞나</i>	사운드+비디오	3분 14초	2021
이슬기, <i>여인의 섬</i>	사운드+비디오	13분 30초	2019
타니아 레온, <i>수평선</i>	사운드	8분 56초	2000
크리스티나 쿠비쉬, <i>테슬라의 꿈</i>	사운드	22분 56초	2014

설치 작업 INSTALLATION WORKS

1층

장지아, *스위치*, 오브제 (물소 가족에 드로잉), 2014
 장지아, *붉은 드로잉-프로젝트*, 오브제 (엽서), 2020-21

지하계단 앞

전미래, *팍!*, 오브제 (원형 코르크, 원형 거울), 2021
 전미래, *어떤 부활*, 오브제 (텍스트), 2021

지하 상영공간

이슬기, *옹기종기*, 오브제 (옹기), 2021

HTTP://REFUGIA.KR